



진안군행정동우회, 여름철 환경정화활동 실시

진안군행정동우회(회장 배병옥)는 8일 주천면 운일암반입암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정화 활동은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쌓인 부유물과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정동우회원과 주천면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방문객이 많은 구름다리를 중심으로 정화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바위틈에 걸린 쓰레기가 많아 구슬땀을 흘렸다. 전주성 군수는 현장을 방문해 수거활동에 힘을 보태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적극적으로 임해주는 회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앞으로도 청정잔잔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했다.

배병옥 회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지역 곳곳이 피해를 입어 안타까웠다”며 “우리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 노암동, 취약계층에 여름용품 세트 전달



남원시 노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차미화)는 지난 7일 무더위에 취약한 이웃 4세대에 대한 적십자사의 ‘희망봉’ 사업을 통해 후원받은 여름용품(선풍기, 세탁제, 살충제) 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후원물품 지원은 1일 1가구 소통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생활 전반에 대한 안부를 확인하고, 세대별 어려움과 복지 욕구를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어르신은 ‘와롭게 지내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와 주는 게 큰 위로가 된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차미화 노암동장은 “이번 후원은 단순한 물품 전달이 아닌 이웃의 결을 지키는 마음을 담은 나눔이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산동면, 소통방문 서비스·여름용품 제공

남원시 산동면은 1일 1가구 소통방문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시원하게 나기 위한 다양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산동면은 관내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설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복지사각지대 밀집을 통한 통합사회서비스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안내 제공해 주민들의 복지 수혜 체감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전북은행은 축제기간 중 ‘전북은행 쑥버스’를 통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보건소, 예비맘 출산교실 운영 참여자 모집

김제시(시장 정성주) 보건소는 예비엄마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준비를 돋기 위해 산모 15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5일부터 9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4회에 걸쳐 출산 준비교실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출산준비교실은 무료로 입신·출산·육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과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번 제3기 출산교실은 매주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신생아 관리 및 초기 육아기술, △성공적인 모유수유 교육, △임산부 산전 요ガ, △아기용품(원목 수유등) 만들기 등의 주제로 보건소 1층 모자보건 프로그램실에서 진행하며, 신청은 방문접수(김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또는 전화접수(☎540-4154, 1323)로 선착순 모집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성 가득 삼계탕 한 그릇에 담긴 따뜻한 마음’

진안 어르신들께 전한 친봉회의 사랑의 삼계탕 봉사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밀복 전날인 지난 8일 진안 성수면의 한 마을 식당에서는 땀과 정성으로 끓여낸 삼계탕이 어르신들의 식탁 위에 올랐다.

힘들게 삶의 무게를 오롯이 견뎌낸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이날 하루만큼은 따뜻한 온기와 웃음이 가득한 시간이 됐다.

친절봉사회(회장 임규래, 이하 친봉회)는 8일 점심시간에 진안군 성수면 목초마을 식당에서 백운면·마령면·성수면·주천면·부구면 등 다섯 개 면에서 선정된 노인 및 좀 둘봄 서비스 대상 어르신 120명을 초청해 삼계탕 봉사활동을 펼쳤다.

참석한 어르신들은 이날 정성껏 준비된 삼계탕 한 그릇에 몸과 마음을 녹이며 “마니면 전주에서 찾아와서 삼계탕을 대접하는 친봉회원들에게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식사 후에는 장우산이 1인당 1개씩 제공되며 무더위와 비를 막아줄 든든한 동행이 되어주었다.

이번 봉사는 진안 출신 친봉회 상임부회장인 김종상 동광비니루 대표와 진근수 진안경찰서 정보계장(경감)의 적극적인 기획과 추진으로 이뤄졌다. 오랜만에 이별을 받으신 한 어르신은 “머리 자르니 훨씬 시원하고 깊어진 기분이오”라며 눈시울을 불겼다.

또한 임마누엘 재가노인복지센터 정승자 센터장과 복



지센터 구성원들의 차량을 이용한 동행과 인내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참여를 돋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규래 회장, 김종상 상임부회장, 박만도 부회장, 진근수 부회장, 서명자 재무국장, 임예경 회원, 박광호 회원, 이만호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특히 행사는 이날 오전 10시 예선, 오후 2시 30분 본선 및 개회식으로 구성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를 원한다면 22일까지 전화

(063-231-6669, 010-7304-5665), 이메일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장수천천사랑 제3회 전국 트로트 가요제 30일 개최

장수천천사랑 제3회 전국 트로트 가요제가 30일 장수군 천천면 하늘내 체육관에서 열린다.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회장 김양우)가 주최·주관하는 장수천천사랑 전국 트로트 가요제는 농촌 문화예술 활성화와 참여확대는 물론, 트로트를 통해 삶의 풍요와 더위, 장사에 지쳤던 농민들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행사는 이날 오전 10시 예선, 오후 2시 30분 본선 및 개회식으로 구성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를 원한다면 22일까지 전화

(063-231-6669, 010-7304-5665), 이메일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장이봉사단, 남원 동총동 어르신에 쿠키 등 전달

남원시 동총동 관계자는 지난 7일 시 청소년수련관 창이봉사단이 정성을 담아 직접 만든 쿠키와 부채 60세트를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전했다고 밝혔다.

창이봉사단 청소년수련관 자원봉사 동아리로, 지역사회 이동, 청소년 및 소외계층 등 다양한 이웃을 위해 직접 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나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나눔 활동은 남원시자원봉사센터의 청소년 기획프로그램에 참여한 활동으로, 단순히 기부를 넘어 청소년들이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김자남 동총동장은 “청소년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이번 나눔 활동이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찾아가는 금융서비스 제공 ‘인생네컷 포토부스’, 운영 JB 카드한인 이벤트 등을 펼치며 관객들과 소통 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은,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 성공 개최 후원금 1억원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진우)은 지난 8일 전북은행 본점 8층에서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후원금 1억원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 중심으로 세계의 음악이 한자리에서 만나 소리의 향연을 펼치는 독창적인 공연예술축제로 전북은행은 지역의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통해 지역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이번 전달식을 마련했다.

이 날 전달식에는 백종일 은행장,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 위원회 이왕준 조직위원장, 김희선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후원금 1억원은 ‘본향의 메아리(Echoes from the Homeland)’라는 주제로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축제에서 국내·외 초청공연을 비롯한 소리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전북은행은 축제기간 중 ‘전북은행 쑥버스’를 통한

가 어려운 복지시설에 이웃들을 대상으로 기획된 것으로,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가족관계 단절로 외로움을 겪는 흙풀 어르신들과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직접 찾아가, 삼계탕 전달과 함께 안부를 확인하고 정서적 지지까지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보양식을 직접 챙겨주시니 정말 감사하고 큰 힘이 난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농협, 무주지역에 삼계탕 나눔 진행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이 말복을 앞둔 지난 7일과 8일 무주지역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여름철 영양 보충과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돋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북농협과 농가주부모임 회망드림봉사단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교통이 불편해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직접 찾아가 삼계탕을 전달해드렸으며, 센터에 방문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손수 끓인 삼계탕을 대접했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이번 행사로 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의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다”며 “전북농협은 지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 태권도체육학과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문 태권도인 양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비전대 김정은,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준우승

전주비전대학교 김정은(태권도체육학과 1년) 학생이 제60회 대동령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에서 준결승과 위력·주먹 여성 부문 준우승을 차지하는 평가를 이뤘다.

이에 따르면 김정은 학생은 민족도로서 학업과 훈련을 병행하며 꾸준한 자기관리와 훈련에 매진한 끝에 전국의 쟁쟁한 선수들 사이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정은 학생은 “태권도를 향한 열정으로 다시 시작한 대학 생활에서 이런 성과를 거둬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훈련에 더욱 매진해 학교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태권도인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보양식을 직접 챙겨주시니 정말 감사하고 큰 힘이 난다”라고 전했다.

/전주=김은경 기자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최선주)와 새마을협의회(회장 이정섭)는 지난 8일 금평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건강을 기원하는 칠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나눔 행사는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이를 아침부터 직접 재료를 손질하고 정성을 담아 준비한 칠밥으로, 금평경로당을 찾은 관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끼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회원들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손수 만든 음식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

새마을부녀회 최선주 회장과 새마을협의회 이정섭 회장은 “어르신 칠밥 봉사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칠밥을 드시는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를 보니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소연 인후2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힘든 여건이지만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돋는 일에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최희성 기자